

팀 복귀 손흥민, 위기에서 빛났다

왓퍼드전서 역전골로 토트넘 2-1승리... 리그 9호 강행군 일정·아시아컵 탈락 심적 부담 속 '천금 골'

한국 대표팀이 우승 도전에 나선던 2019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남은 '에이스' 손흥민(27·토트넘)의 표정은 아쉬움이었다.

영국에서 연말연시 실 팀 없이 이어지는 소속팀 일정을 소화하다가 아시안컵 조별리그 막바지에 대표팀에 합류,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강행군을 이어갔지만, 대표팀은 8강에서 카타르에 일격을 당해 예상보다 일찍 탈락했다.

"그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몸 상태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다"며 제 몫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 속에 영국으로 돌아간 손흥민은 다시 뛰었다.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왓퍼드와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홈 경기에서 터진 그의 골은 쌓인 피로와 마음고생을 모두 떨치는 계기가 될 만한 한 방이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이 0-1로 끌려다니던 후반 35분 때서든 왼발 슈트를 꽂아 답답하던 팀의 공격을 살려내며 2-1 역전승에 일조했다.

이 골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9호(시즌 전체 13호) 골을 기록하며 3년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표를 앞섰다.

이번 시즌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국가대표팀 경기 출전 여파로 피로가 누적돼 개막 이후 두 달 넘게 지나서야

첫 골을 신고했으나 지난해 12월 맹활약 등을 통해 득점을 차곡차곡 쌓아 어느덧 리그 10골 돌파가 임박했다.

손흥민이 돌아와 득점포를 다시 가동한 건 토트넘 입장에서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 같다.

UAE를 오가며 연이은 경기를 소화하느라 피로를 채 찾아내지 못한 손흥민에게 복귀전 풀타임을 맡겨야 할 정도로 토트넘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골잡이 해리 케인이 발목 부상으로, 주로 손흥민 등과 2선에서 호흡을 맞추던 델리 알리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두 선수가 연이어 전력에서 이탈하고 손흥민마저 자리를 비우면서 토트넘은 최근 잉글랜드 리그컵(카라바오컵)과 FA컵에서 모두 탈락했다.

그러나 돌아온 손흥민이 공격진에서 고군분투하고 직접 해결하며 활기를 불어넣은 덕분에 리그에서는 연승을 이어가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토트넘(승점 54)은 사흘도 채 쉬지 못하고 다음달 2일 밤 뉴캐슬과 리그 홈 경기를 펼친다. 맨체스터 시티(승점 56)와 승점 2 차이로 2위 도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손흥민의 활약이 다시 필요한 순간이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한국시간) 왓퍼드와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홈 경기에서 역전골을 터트린 손흥민이 주먹을 쥐고 환호하고 있다. /EBA=연합뉴스

손흥민·지소연, '런던 풋볼 어워즈 2019' 후보 선정

잉글랜드 무대에서 활약하는 손흥민(토트넘)과 지소연(첼시 레이디스)이 나란히 '런던 풋볼 어워즈 2019'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런던 풋볼 어워즈' 홈페이지에 공개된 부문별 후보자 명단에 따르면 손흥민은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아스널), 에덴 아자르(첼시), 해리 케인(토트넘), 앤드루스 타운센드(크리스털 팰리스) 등과 함께 '프리미어

리그 올해의 선수' 후보에 포함됐다.

또 '지메시' 지소연도 에린 쿠스버트(첼시 레이디스), 리앤나 닐(토트넘 레이디스), 비비안 미데마, 조던 뉴스(이상 아스널 레이디스) 등과 함께 '올해의 여자 선수' 후보에 포함됐다.

'런던 풋볼 어워즈 2019'는 현지시간으로 오는 29일 런던의 '배티시 에블루션'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광주FC, 오키나와서 옥석 가린다

광양에서 첫 담금질을 마친 프로축구 광주FC가 2차 전지훈련을 위해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했다.

광주는 2019시즌을 대비해 지난달 31일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16일간 펼쳐지는 2차 동계훈련은 실전훈련과 옥석가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된다.

실제 광주는 3일에 한 번 꼴로 총 5차례에 걸쳐 연습경기를 치른다. 이 중에는 이니에스타, 포돌스키 등이 소속돼 있는 비셀고베(J1)도 포함돼 있다.

박진섭 감독은 "K리그2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많은 경기를 통해 빠르게 감각을 올려야 한다"며 "강팀과의 스파링으로 우리의 단점을 찾고 보완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선수들의 실력과 조직력, 투쟁심 등도 함께 관찰할 것"이라고



광양에서 첫 담금질을 마친 프로축구 광주FC가 2차 전지훈련을 위해 지난달 31일 일본 오키나와로 출국했다. 출국하기 전 광주FC 선수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밝혔다. 치열한 경쟁을 앞둔 선수들 또한 다부진 각오로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주장 김태운은 "전력이 좋아진 걸 느낀다. 개인 실력 차가 그리 크지 않아 베테랑 선수들도 훈련을 게을리할 수 없다"며 "가

광양 이어 일본서 2차 전지훈련 위해 출국 박진섭 감독 "팀 약점 미리 찾아 완벽 보완"

장 중요한 건 서로 간의 호흡과 조직력이다. 많은 이야기를 통해 팀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희생하겠다"라고 말했다.

팀의 막내인 정현우는 "고등학교와 프로는 하늘과 땅 차이다. 힘들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고, 이겨내야 경쟁도 할 수 있다. 올 시즌 반드시 그라운드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상기 기자 godqhr0065@

'광주세계수영대회 분위기 조성'... 설 맞아 홍보 총력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는 설을 맞아 대회 분위기를 조성할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조직위는 본격 귀성이 시작되는 1~2일 광주송정역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 광주 유스퀘어에서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현

장 맞춤형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에는 조영택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직위와 광주시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조직위는 광주를 찾는 귀성객들에게 대회 소개 리플릿과 기념품 등을 나눠줄 계획이다.

또 마스코트 '수리 달이' 포토존 설치와 로드쇼, 율놀이와 제기차기 등 귀성객 참여 이벤트 등을 마련했다.

광주 시내버스에 수영대회를 알리는 광고와 함께 서광주·동광주·북광주·동광산 고속도로 요금소에 대해 홍보판도 설치했다.

설 특집으로 15만부를 발행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지 '위클리 공감'에 대회 소식을 실어 설 연휴 기간 개방하는 주요

관광사·공공기관, 문화·관광 시설, KTX 등에서 귀성객들에게 대회 소식을 전달한다.

설 명절 직후부터 전국에서 열리는 수영대회 현장을 찾아 마스터즈 동호인 참가자 유치를 위한 현장홍보 활동도 본격화한다.

특히 조직위는 지난 25일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지점 12곳에 대회 상징물인 수리 달이 마스코트 조형물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태극마크 반납한 기성용 SNS에 심경 밝혀 "축구대표팀 변화 위한 선택"

"제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한국 축구대표팀의 변화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떠나는 게 맞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축구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기성용(30·뉴캐슬)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팬들에게 대표팀을 떠나는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해시안컵 조별리그 1차전 필리핀전까지 A매치 110경기 뛰면서 10골을 터트렸다.

기성용은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에 "사실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라며 "지난 10년 동안 많이 부족한 저를 응원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팬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이제는 이 자리를 내려놓으려 한다. 돌이켜 보면 부족했던 부분이 참 많았는데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것 같다"라며 특히 "대표팀의 주장을 맡으면서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항상 좋은 축구를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 마음처럼 결과를 얻지 못해 많이 힘들었다. 이번 아시안컵 또한 아쉽고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제가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대표팀의 변화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은퇴 이유를 설명했다.

2008년 9월 5일 요르단 평가전을 통해 태극마크를 처음 단 기성용은 올해 아시아컵 발렌시아 1군 등록 올해 1월 바야돌리드전서 1부 데뷔... 국왕컵서 득점 도와

이강인, 스페인 축구 발렌시아 1군 등록

올해 1월 바야돌리드전서 1부 데뷔... 국왕컵서 득점 도와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 소속의 이강인(18·사진)이 1군에 정식으로 등록했다. 발렌시아는 지난달 31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을 1군에 등록했다. 등번호는 16번이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인 1부리그 신고식이었다. 이강인은 앞서 지난해 7월 발렌시아와 2022년까지 재계약하면서 8천만 유로(약 1천29억 원)의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인은 지난 10월 스페인 국왕컵 에브로와 32강전에서 한국 선수 역대 최연소인 만 17세 327일의 나이로 데뷔했고, 올해 1월 13일 바야돌리드전에서 교체 출전해 프리메라리가(1부리그)에 데뷔했다.

한국 선수로는 이천수(레알 소시에다드)와 이호진(라싱), 박주영(셀타비고), 김영규(알메리아)에 이은 다섯 번째 스페인

이강인은 지난 27일 비아레알전에서 두 번째로 프리메라리가 경기에 뛰었고, 30일 헤타페와 스페인 국왕컵 8강전에선 1-1로 맞선 후반 26분 환상적인 크로스로 3-1 승리와 4강 진출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체육대상에 쇼트트랙 임효준

남녀 최우수상 이상호·나아름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임효준(23·한국체대)이 제65회 대한체육회 체육대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체육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23회 이사회에서 체육대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금메달, 5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임효준이 대상을 받는다.

스노보드 이상호(24)와 사이클 나아름(29)은 경기 부문 남녀 최우수상을 각각 받는다.

이상호는 평창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은메달리스트로 올림픽에서 한국 스키 사상

최초로 메달을 목에 걸었다.

나아름은 작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개인도로, 도로독주, 단체 추발, 매디슨을 석권해 한국 사이클 역대 최초의 아시안게임 4관왕에 올랐다.

시상식은 27일에 열린다. 체육회는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자 정관을 개정했다.

먼저 '임원 결격 사유 대상' 기관의 범위를 시도·시군구 중목단체로 확대했다.

또 '체육계 성폭력 등 비위 근절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 중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 양정 기준을 5년 이상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에서 영구제명으로 한층 강화했다.

/연합뉴스

올 시즌도 프로야구는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KBO는 2019시즌 KBO리그의 대회명을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로 확정하고 지난달 31일 공식 엠블럼을 발표했다.



역대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인 3년 240억 원에 지난해부터 타이틀 스폰서로서

KBO리그 공식 엠블럼은 전 구장 대회 고지를 비롯해 입장권, 간행물 등 각종 제작물과 KBO 정규시즌 중계방송 제작 등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다.

KBO리그를 후원하는 신한은행은 올해도 프로야구와 연계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연합뉴스